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6. 2. 19.(금), 14:00~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이현혜, 성성열, 최성락, 박보현,
강현숙, 김권구, 서동철, (이상 7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용진군 관할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2	제주 고산리유적 안내센터 신축에 따른 문화재 발굴(시굴)	공개
3	인천 계양산성 제8차 발굴	공개
4	연천 호로고루 동벽 남측 치성 발굴	공개
5	서천 봉선리 유적 정비사업구간 내 발굴 재심의	공개
6	서울 종로구 경희궁1길 000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7	서울 종로구 통의동 000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8	서울 종로구 와룡동 131번지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공개
9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 확장(제5,6공구) 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공개
10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5공구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1	창원 가포지구 공공주택 건설부지 내 지표조사 관련 처분 심의	공개

【검토사항】

1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구간 내(10 공구) 유적 보존방안 재검토	공개
---	---------------------------------------	----

I. 심의사항

안건번호 매장2016-02-01

1. 옹진군 관할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주)삼한강 외 13개 회원사에서 추진하는 인천 옹진군 소재 「옹진군 관할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옹진군 관할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
-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 선갑도 해상 일원
- 사업면적 : 40,000,000m²
- 사업내용 : 바다모래 채취
- 시행자 : (주)삼한강 외 13개 회원사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재)영해문화유산연구원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 조사면적 : 40,000,000m²
- 조사기간 : 2015. 11. 2. ~ 2016. 1. 29. (총 89일)
- 조사결과
 -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유적·유물은 없었으며, 인접한 섬지역도 5km이상 멀리 떨어져 있음
 - 조사지역 및 주변 1km 이내에서 유적이거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중조사지역의 장비탐사 및 잠수조사 결과 확인된 이상체는 12개소임. 이상체는 조류에 의해 생성된 해저지형이었으며, 문화재와 관련된 특별한 이상체는 발견되지 않음
 - 따라서 조사지역에서 문화재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라. 학술자문회의(2015. 12. 24.)

○ 참석자 : ○○○, ○○○

○ 회의결과

- 조사지역 내에는 조사기관 검토의견과 같이 유적·유물은 확인되지 않은 바, 사업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 다만, 사업시행 중 유물 또는 유적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마. 검토의견

○ 조사단 및 학술자문회의 의견대로 조치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검토의견 대로 조치

○ 원안가결 6명 / 출석 6명

2. 제주 고산리유적 안내센터 신축에 따른 문화재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제주 한경면 소재 「제주 고산리 유적」(사적 제412호) 안내센터 신축부지 내 발굴(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고산리 유적」 전시관 및 안내소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공사부지에 대한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자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시장
- (2) 발굴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01-28번지 외 13필지
- (3) 발굴면적 : 519m²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5일간
- (5) 발굴기관 : (재)제주고고학연구소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라. 문화재 현황

- 문화재명 : 제주 고산리 유적
- 지정일자 : 1998. 12. 23.
- 지정면적 : 98,465m²
- 지정사유 : 1991년과 1992년 조사결과 차구내 포구에서 수월봉에 이르는 유물산포지를 확인하고 약 6,000여점의 유물을 수습하였으며 1994년, 1997년, 1998년 총3차례의 시·발굴 조사를 통해 세석인문화와 함께 고산리식토기 등이 출토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신석기시대 유적

마. 참고사항

- 동 사업은 2014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임

○ 발굴조사 현황

연도	발굴기관	발굴기간	발굴면적	발굴결과	허가번호
1994	제주대박물관	1994.6.~1994. 8.	800㎡	각종 석기와 고산리식토기 출토	
1997	제주대박물관	1997. 4.~1997. 8.	1,500㎡	석축 600점 등 약 17,000점의 석기와 약 1,900여 점의 토기 출토	
1998	제주대박물관	1998. 11.~1999. 2.	200㎡	고산리유적 국가사적 지정	
2011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0. 9.~2011. 2		고산리 선사유적지 정비복원계획 수립	
2012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2. 6.~2012. 10.	시굴조사 : 26,642㎡ 발굴조사 : 2,437㎡	원형 움집터 26동과 수혈유구 295기, 야외노지 10기, 구상유구 2기	2012-0431
2013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4.~2013. 7.	1,107㎡	주거지 7동, 수혈유구 227기, 소토유구 3기, 구상유구 1개소	2013-0345
2014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4. 9.~2015. 1.	1,500㎡	주거지 4동, 수혈유구 78기, 소토유구 3기, 구상유구 2개소	2014-0603
2014	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4.~2016. 2.	시굴조사 : 57,303㎡ 발굴조사 : 300㎡	국가사적 범위내 문화층 잔존범위 확인 지상식주거지 확인	2014-0649
2015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8.~2015. 11.	600㎡	주거지 1동, 수혈유구 19기, 소토유구 1기	2015-0858
2015	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8.~2015. 11.	600㎡	좁돌날몸돌 및 다양한 석기군 확인	2015-0857
2015	제주고고학연구소	2015. 11.	700㎡	고산리유적 안내센터 하수관거 부지 시굴결과 침두기, 석축 등 다수의 유물 및 문화층 확인	2015-1103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시굴)조사 허가
- 원안가결 6명 / 출석 6명

3. 인천 계양산성 제8차 발굴

가. 제안사항

계양구에서 추진하는 인천 계양구 소재 계양산성(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0호)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0호 『계양산성』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유적의 정비·복원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2015년 제7차 시·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성 내부의 건물지에 대해 잔존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계양산성의 성격 및 축조시기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정밀발굴조사(8차)를 실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계양구청장
- (2) 발굴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동 산49-3번지 일원
- (3) 발굴면적 : 2,418㎡(정밀)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 (5) 발굴기관 : (재)계재문화유산연구원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라. 문화재 현황

- 문화재명 : 계양산성
- 지정일자 : 1992. 5. 29.
- 지정면적 : 62,863㎡
- 지정사유 : 계양산 동쪽 능선에 있는 이 산성은 돌로 쌓은 성으로, 고산성이라고도 부르며, 성을 쌓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재 대부분의 성곽이 훼손된 상태임

마. 참고자료

○ 발굴조사 현황

연도	발굴기관	발굴기간	발굴명칭	발굴결과	비고
2003년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2003.08.12 ~ 2003.10.30	계양산성 1차발굴조사 (서벽부근)	철축 9점, 철제1점, 철정 1점, 석경 1점, 갈돌 1점 등 13점	2002-0558
2004년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2004.12.15 ~ 2005.06.11	계양산성 2차발굴조사 (제1집수정)	대부호저부 2점, 기와 7점, 파수 3점, 방추차 2점 등 20점	2004-0840
2006년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2006.05.16 ~ 2006.11.16	계양산성 3차발굴조사 (제3집수정)	고배3점, 연화문와당 1점, 방추차 3점, 기와 14점, 목간 2점, 대상파수 2점 등 40점	2006-0244
2009년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09.05.15 ~ 2009.09.29	계양산성 4차시·발굴조사 (북문지)	토기3점, 도기1점, 자기6점, 기와류25점, 토제품1점, 철제품76점 등 112점	2009-0277
2013년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3.08.07 ~ 2014.01.22	계양산성 5차시굴조사 (민묘이전지역)	토기류(접시, 시루편 등), 기와류, 석제류 등 46점	2013-0606
2014년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4.06.18 ~ 2014.12.22	계양산성 6차발굴조사 (북문지 서남쪽)	철기류 81여점, 옥석류 7여점, 토기와류 58여점, 건물지 9개동, 수혈유구 19점 등	2013-0606
2015년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5.05.27 ~ 2015.08.17	계양산성 7차시·발굴조사 (치, 성벽, 북동쪽 건물지)	금속(돌쩌귀, 창촉) 2점 토도암키와 수키와 경질토기 등 92점	2015-0358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 원안가결 6명 / 출석 6명

4. 연천 호로고루 동벽 남측 치성 발굴

가. 제안사항

연천군에서 추진하는 경기 연천군 소재 연천 호로고루(사적 제467호) 동벽 남측 치성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1257-1번지 일원의 연천 호로고루(사적 제467호) 동벽 치성 구간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정비·보존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연천군수
- (2) 발굴지역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1257-1번지 일원
- (3) 발굴면적 : 60㎡(정밀)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9일간
- (5) 발굴기관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라. 문화재 현황

- 문화재명 : 연천 호로고루
- 지정일자 : 2006. 1. 2.
- 지정면적 : 76,704㎡
- 지정사유
 - 임진강에 접한 현무암 천연절벽의 수직단에 위에 있는 삼각형의 고구려 강안평 지성으로 임진강이 국경하천역할을 했던 삼국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음 문화유산임
 - 성벽 전체 둘레는 401m 정도이며, 그 중 남벽 161.9m, 동벽은 93.1m 정도임.
 - 2000년도에 경기도 기념물 제174호로 지정되었다가, 2006년도에 사적 제467호로 승격됨

마. 참고사항

- 동 사업은 2016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임

○ 발굴조사 현황

연도	발굴기관	발굴기간	발굴명칭	발굴결과	비고
2001년	토지박물관	2001.11.10 ~ 2001.06.15	연천 호로고루 정밀지표조사 및 동벽단면조사	금동불상 등 5점	2000-178
2006년	토지박물관	2006.07.11 ~ 2006.009.20	연천 호로고루 2차 발굴조사 (성내부시굴조사)	고구려 기와 등 150점	2005-828
2009년	토지박물관	2009.04.20 ~ 2009.6.27	연천 호로고루 3차 발굴조사 (지하식 집수시설 성외부 시굴조사)	토기, 기와류 55상자	2009-005
2011년	토지구택박물관	2011.05.02 ~ 2012.03.20	연천 호로고루 4차 발굴조사 (지하식 집수시설, 고려시대 건물지)	토기, 기와, 철기, 목기 등 543점	2011-277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 원안가결 6명 / 출석 6명

5. 서천 봉선리 유적 정비사업구간 내 발굴 재심의

가. 제안사항

서천군에서 추진하는 충남 서천군 소재 「서천 봉선리 유적」(사적 제473호)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재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유적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탐방로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유적의 정비·복원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2016년 제2차 소위원회(2016. 2. 12.)에서 “현지조사 후 재심의”로 보류된 사항으로 현지조사 후 재심의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천군수
- (2) 발굴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풍정리 산33번지 일원
- (3) 발굴면적 : 7,771m²(정밀)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 (5) 발굴기관 :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라. 현지조사(2016. 2. 15. / ○○○, ○○○)

- 조사 대상 지역이 좁게는 작은 도랑을 경계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보다는 소지형구를 선정해서 전체를 그리드설정하여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함
- 추정 제단시설, 생활유적 1, 생활유적 2로 나누어서 발굴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선 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정밀분포조사도 병행할 것

마. 문화재 현황

- 문화재명 : 서천 봉선리 유적
- 지정일자 : 2006. 11. 6.
- 지정면적 : 256,924m²
- 지정사유 : 2003년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동기시대부터 마한·백제·조선시대에 이르는 360여개의 다양한 유구가 조사됨

바. 발굴 현황

○ 시굴조사

- 조사면적 : 28,938m²
- 조사기간 : 2014. 10. 27.~2014. 12. 11.
- 조사기관 :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조사결과 : 백제시대 제단시설 1기, (추정) 저장시설 1기 등 원삼국~조선시대 유구 52기 확인(고배 등 유물 10점 확인)

○ 발굴(주차장 조성부지)

- 조사면적 : 4,116m²
- 조사기간 : 2015. 6. 29.~2015. 9. 17.
- 조사기관 :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조사결과 : 백제시대 주거지 11기, 수혈유구 8기, 소성유구 1기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주거지 4기, 수혈유구 7기, 분묘 2기 등 총 35기의 유구 확인

사. 참고사항

- 동 사업은 2012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임

아.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제단지원구역 4,693m²)

○ 원안가결 6명 / 출석 6명

6. 서울 종로구 경희궁1길 000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경희궁 1길 000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종로구 경희궁1길 000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 회의(2016. 2. 5.)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평가회의를 실시(2016. 2. 5.)하고 해당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이정은
- (2) 발굴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 1길
- (3) 발굴면적 : 발굴 537.9m²
- (4) 발굴기관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000
 - 책임조사원 : 000
- (5) 발굴기간 : 2016. 1. 27.~현재 조사 중
- (6) 조사결과
 - 조사지역의 북서측은 1966년에 준공된 기존 건물의 지하층으로 인해 원지형이 이미 훼손되었고, 남동측은 배수로와 답도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음
 - 배수로는 동-서 방향으로 연결되고, 잔존 길이는 4.6m, 폭 170cm(내부 폭 95cm)이며, 추정 답도의 잔존 길이는 4.2m, 폭 2.8m임
 - 금번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배수로는 주변의 신문로2가 1-112번지와 1-116번지 유적에서도 확인된 배수로와 축조방식이 비슷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라. 전문가 검토회의(2016. 2. 5. / 000, 000, 000)

- 조사지역은 사적 제271호인 '경희궁지'의 동측에 인접한 지역으로, 조사지역을 포함한 경희궁의 동측 일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사에 의해 훼손되기 전까지 경희궁의 구역에 포함되었던 곳임

- 조사지역의 남동측에서 동-서방향으로 조성된 배수로(잔존길이 약 4.6m, 폭 1.7m, 내부 폭 0.9m)와 추정 답도(잔존길이 4.2m, 폭 2.8m) 확인
- 주변지역에서 조사된 유사 성격의 유구와 상호 비교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조사지역 내 절토부분은 협의하여 복토할 것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6. 2. 5. /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 평가점수 : 87.64점
 - 경희궁 구역 내의 배수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유적으로 역사·문화적 의미가 있으므로 보존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유적의 보존조치 처리는 기 조사된 인접지역의 유구처리 결과를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도록 함

바. 서울시 의견(2016. 2. 17.)

- 당해 유적에서 확인된 유구는 경희궁 동측에 존재했던 배수로와 답도로 추정되는 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유적임
- 유적이 출토된 지역은 경희궁 구역의 사적 확대지정이 검토된 지역으로 현재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대규모 보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유적은 기존의 인근 지역에서 확인된 유적들과 연계하여 경희궁 내 배수시설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문화적 의의가 큰 유적으로 현 높이인 지하에 현지보존하여 향후 출토된 유적들과 함께 증장기적 보존 관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보존방법은 기 조사된 인접지역의 유구처리 결과와 형평성 고려가 필요함

사. 사업시행자 의견

- 금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 중 배수로는 현지에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함. 이를 위해 잔존하는 배수로 유구 끝부분에서 1m 이상을 이격하여 보호벽을 설치함으로써 공사 중에 유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노출된 유구(배수로)는 모래마대와 부직포 등을 활용하여 보양토록 하고, 양질의 모래를 사용하여 노출된 유구 상부에 1m 이상 두께로 복토함
-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도로와 인접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발굴된 유적의 내용과 역사성 등을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내문은 조사기관 등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고 설치하고자 함

아.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유구 보존은 사업시행자 (안)대로하되, 안내판은 건물 외곽에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 설치
- 조건부가결 7명 / 출석 7명

7. 서울 종로구 통의동 〇〇〇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통의동 〇〇〇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종로구 통의동 〇〇〇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6. 2. 5.)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평가회의를 실시(2016. 2. 5.)하고 해당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강태선
- (2) 발굴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5-17번지
- (3) 발굴면적 : 발굴 574.4m²
- (4) 발굴기관 : (재)백두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〇〇〇
 - 책임조사원 : 〇〇〇
- (5) 발굴기간 : 2016. 1. 18.~현재 조사 중
- (6) 조사결과
 - 조사지역은 창의궁터 내에 위치하며,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건물지 2동, 부속시설 2기, 적심 7기, 석열 3기 등이 조사됨
 - 1호 건물지는 동-서축으로 기단부가 잔존하고 있으며, 잔존길이는 동서축 약 15m, 남북축 약 8m 정도임. 건물지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기초시설로는 기단기초석과 기단석 등이 확인되었으며, 자기 및 기와 등의 출토유물로 보아 16~17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됨
 - 2호 건물지는 1호 건물지가 철거된 후 대지를 정지한 후 그 상부에 설치됨. 동-서축으로 축조되었으나 1호 건물지의 축과 약간 틀어져 있으며, 교란이 심하여 정확한 규모 및 형태는 파악하기 어려움.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 17세기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됨

라. 전문가 검토회의(2016. 2. 5. / 000, 000, 000)

- 조사지역은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영조의 잠저인 창의궁터에 해당하며, 조사지역은 창의궁 내의 북서쪽에 해당됨
- 1·2호 건물지는 선후관계가 인정되며, 출토유물로 보아 16~17세기에 조성된 건물지의 기초시설로 판단됨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6. 2. 5. / 000, 000, 000)

- 평가 평점 : 88.59점
 - 창의궁 내에 조성되었던 건물지로 보존가치가 큰 유적임
 - 향후 건축행위는 확인된 유구가 보존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최종 유적의 보존조치 처리는 기 조사된 인접지역의 유구처리 결과를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도록 함

바. 서울시 의견(2016. 2. 17.)

- 종로구 통의동 35-17번지에서 출토된 유구는 영조의 잠저인 창의궁 내 일청헌 등 중요한 건물지의 기초시설로 추정되는 보존가치가 높은 유적임
- 유적이 확인된 서촌 일대는 대부분 사유지이자 향후 소규모 개발이 진행될 지역으로 타 지역처럼 일거에 대규모 보존 방법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이에 금번 확인된 유구는 사적 경복궁과 연계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현 높이인 지하에 현지보존하여 향후 출토된 유적들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보존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보존방법은 인접지역의 기 조사된 유구 처리결과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사. 사업시행자 의견

- 보존방안 : 이전보존
 - 확인된 유구를 신축건물 1층으로 이전 복원
- 활용방안 : 설명패널 등을 설치하여 유적의 존재 주지 및 안내

아. 의결사항

- 보류
 - 건축 관련 설계도면 제출받아 재검토
- 보류 7명 / 출석 7명

8. 서울 종로구 와룡동 131번지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와룡동 131번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 결과를 부의하오니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종로구 와룡동 13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보존방안이 2016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의(2016. 1. 15)심의 결과 부결
- 사업시행자의 보존방안이 재 제출되어 동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사업시행 방안)을 재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주)고려디자인·건축사사무소동영
- (2) 발굴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131번지
- (3) 사업내용 : 지하 1층, 지상 5층(지하 1층~지상 2층 상업시설/지상 3층이상 갤러리)
- (4) 발굴면적 : 275㎡
- (5) 발굴기관 : (재)백두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 (6) 발굴기간 : 2015. 11. 26.~2015. 12. 8.
- (7) 조사결과
 - 조사지역은 비변사 터의 동남쪽 모퉁이에 해당되는 곳으로 발굴 결과, 조선시대 건물지 1동(정면 4칸·측면 1칸 이상/잡석지정), 일제시기 우물 2기, 근현대 건물지 1동 등이 확인됨
 - 조선시대 건물지(16m×3.5m)는 대형의 기초(잡석지정-직경 1.5m) 위에 조성되었음
 - 잡석지정 노출과정에서 분청사기편 1점과 17~18세기 자기편 및 기와편 수습

라. 전문가검토회의(2015. 12. 15. / ○○○, ○○○, ○○○)

- 창덕궁의 전면에 위치한 조선시대 비변사·승문원 터와 관련된 대형 공공 건물지의 일부로 추정되며, 대형 적심유구(1.5m 내외) 등이 발굴됨

- 유적의 위치와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태로 보존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발굴된 유구의 보존을 전제로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12. 15. / ○○○, ○○○, ○○○)

- 평가 평점 : 89.13점

바. 서울시 의견(2015. 12. 15.)

- 종로구 와룡동 131번지 내 출토된 대형 적심유구는 돈화문로의 비변사 터 등과 관련이 있는 공공건물지로 추정되며 세계문화유산 창덕궁과 우리 시에서 신축계획 중인 전통문화전시관과 연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발견된 현 높이인 지하에 현지보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사. 사업시행자 의견(㈜고려디자인·건축사사무소동영)

- 지상층 출입과 지하층 출입부분을 분리하여 지하층은 전시공간으로 마련
- 지상 1층은 유구(적심)부분을 투명(유리) 처리하여 1층의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적심부분의 중간에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하여 양측벽면의 적심이 노출된 형태를 관람하도록 할 계획이며, 벽면을 이용하여 적심의 설명패널을 설치

아.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사업시행자의 의견대로 보존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9.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 확장(제5,6공구) 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가. 제안사항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경북 경주시 소재 「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 확장공사(제5,6공구) 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6년도 제1차 문화재위원회의(2016. 1. 15.) 심의결과 유적보존방을 다시 제출토록 보류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의 유적 보존방안이 재 제출되어 재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 (2) 발굴장소 : 경북 경주시 서면 도계리 697-1번지
- (3) 발굴면적 : 시굴(236,824㎡), 발굴(45,542㎡)
- (4) 발굴기관 : (재)삼한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 (5) 발굴기간 : 2012. 7. 5.~2015. 12. 31.
- (6) 조사결과
 - 청동기시대 매장유적으로, 거대한 지석묘 상석을 비롯하여 원형, 장방형의 묘역시설을 갖춘 다양한 매장시설이 확인됨

라. 추진경과

- (1) 전문가 검토회의(2015. 10. 30. / ○○○, ○○○, ○○○)
 - 지석묘 상석은 인접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할 필요가 있으며, 나머지 유구는 양질의 마사토 등으로 덮어 유구현상이 유지될 수 있는 공법으로 매몰하여 보존을 도모
- (2)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10. 30. / ○○○, ○○○, ○○○)
 - 평가 평점 : 93.67
- (3) 2015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유적보존 방안 심의(2015.11.20.)
 - 심의 결과: 현지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

(4) 현지조사

- 1차(2015. 12. 9. / 000, 000, 000)

- 유적을 보존하고 향후 학술적·교육적 자료로 활용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 2차(2015. 12. 10. / 000, 000)

- 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되 중요한 II구역 유구부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하부에 노출시켜 전시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5) 2016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유적보존 방안심의(2016. 1. 15.)

- 심의 결과: 보류

- 도로하부에 유적을 보존하는 방안과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유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

마. 사업시행자 의견(한국도로공사 언양영천건설사업단)

(1안) 노선변경에 따른 유적 원형보존

- 고속도로 본선 선형변경
- 성토시설 대신 옹벽시설 조성을 통한 공간 확보로 유적공원 조성(면적 약 3,000m²)
 - 유구는 복토하여 원형 보존
 - 주변 웅스 및 안내 표지판 설치
 - 지석묘 8기, 묘역식지석묘(원형복원)
 - 지석묘 상석 이전복원 후 유적 전체 잔디를 식재하여 공원 조성

(2안) 이전복원 공원 조성

- 유적 I 구역 인근지역에 중요 유구를 중심으로 선사유적공원 조성(면적 약 5,000m²)
 - 지석묘 8기, 묘역식지석묘(모형복원)
 - 체육시설, 쉼터 설치로 휴식공간 조성
- 유적은 성토보존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사업시행자 제출 1안으로 보존하되, 복토방법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활용 방안 문화재청과 협의

- 조건부가결 7명 / 출석 7명

10.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5공구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경북 경주시 소재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5공구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복선전철 제5공구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6. 1. 7.)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6. 1. 7.)하고, 해당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 (2) 발굴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211-28번지 일원
- (3) 발굴면적 : 발굴 3,090m²
- (4) 발굴기관 : (재)세종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 (5) 발굴기간 : 2015. 11. 02.~2015. 12. 29.
- (6) 조사결과
 - 삼국~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부석시설, 석렬, 적심, 우물, 제방 등 20기의 유구와 통일신라~조선시대 도로유구 1기가 확인됨
 - II구역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는 모량리 일대에 방리제가 시행된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이 시기 행정의 최소 단위인 방을 이루는 경계가 도로유구로서 도시의 경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 한 ‘경주 동해남부선 연결선 건설공사 구간 내 유적(2차)’에서 조사된 유구와 연결되는 양상이 확인됨)

라. 전문가 검토회의(2016. 1. 7. / ○○○, ○○○, ○○○)

- 삼국~통일신라시대 도시유적으로 적심건물지, 우물, 도로, 집석유구 등이 확인됨

- II구역은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복토하고, 구조물 변경(교가 간격 조정 등) 등을 통한 보존방안 마련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6. 1. 7. / 000, 000, 000)

- 평가 평점 : 95.51점

바. 사업시행자 의견(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 착공 전 발굴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1차로 고운모래를 포설 후 2차로 양질의 토사로 원지반까지 복토
- 대곡제3고가 구조물은 발굴문화재 보존 필요성에 따라 II-1구역(석렬, 수혈, 집),
 - II-2구역(도시유구, 우물, 건물지), II-3구역(제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량 경간장을 재배치하고, 교량 기초부는 터파기시 문화재 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가지 설계변경(안)을 제출
 - 검토 1안과 2안은 교량 경간장 배치 간격에 따른 차이로 발굴조사된 일부 유구(담장지1)의 보존 차이임
- 2가지 설계변경(안)은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국가예산이 추가 투입되어야 하는 경제성 및 열차 운행시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한 검토 1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됨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사업시행자 제출 2안으로 보존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

11. 창원 가포지구 공공주택 건설부지 내 지표조사 관련 처분 심의

가. 부의사항

경남 창원시 소재 가포지구 공공주택 건설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재)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사항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의사유

- 동 사업부지(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와 관련 부실 의견 여부 판단
 - (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우리청과 협의를 거쳐 2006년 5월 22일 문화재보존대책 통보
 - 2015. 10. 29.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문화재보존대책 변경협의 요청
 - 조사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조사방법 변경(발굴→표본) 제시
- 기 보존대책을 통보한 사항에 대해 조사기관 임의로 당초와 변경된 조사방법(발굴→표본)을 제시하여 조사내용의 신뢰성 여부 및 행정처리 업무의 지장 초래 등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4>에 의거한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기준' 검토

다. 사업개요

- (1) 사업명 : 창원 가포 공공주택 조성사업
- (2) 사업구간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 (3) 사업면적 : 473,857㎡
- (4) 사업기간 : 2015년~2019년
- (5)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처리경과

- 2006. 3. 24.~4. 22. 동 사업구간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실시
 - 사업면적 : 479,000㎡
 - 조사기관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조사결과 : 가포동 유적 분포예상지, 가포동 고분군, 가포동 큰골유물산포지, 가포동 봉답동 유물산포지 발굴조사 실시
- 2006. 5. 22. 마산 가포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부지 내 문화재보존대책 통보
 - 사업부지 내 유물산포지, 고분군 등은 발굴조사 실시

- 2015. 10. 29. 창원 가포 공공주택지구 문화재보존대책 변경 협의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

- 동 사업부지 지표조사 기관(경남발전연구원/ '14. 5.)에서 조사방법 변경의견 제출

연 번		유 적 명	면 적(m ²)	조사방법	
				기 정('06. 3.)	변 경('14. 5.)
지구내	1	가포동 유적 분포 대상지	61,551	발굴조사	시굴조사
	2	가포동 큰골 유물산포지	14,850	발굴조사	시굴조사
	3	가포동 봉답들 유물산포지	121,681	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4	가포동 표본시굴 대상지	94,796	표본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지구외		가포동 고분군	15,364		

- 2015. 11. 12. 창원 가포지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요청(경남발전연구원)
 -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조사방법 변경사유, 근거 등
- 2015. 11. 30. 창원 가포지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 사업시행자의 조사구분 등에 대한 검토 요청에 따라 지표조사를 재실시한 결과,
 - " 봉답들 유물산포지" 경우 '06년 조사시 고려시대 도기편,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으나, 2014년 조사시 와편 일부가 수습되었고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낮아 보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 제시
- 2015. 12. 7. 창원 가포지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재보완(경남발전연구원)
 - 문화재보존대책을 통보하여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안에 대하여 임의로 반복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유
 - 현시점에서의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조사방법 제출 등
- 2015. 12. 18. 창원 가포지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재보완에 대한 회신
 - 한국토지공사의 보완조사 요청에 사업부지 변경 등으로 협의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표조사 재실시
 - 재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형질변경이 심하여 표본조사로 변경하였으나 학술자문회의 결과 "유물산포지에서 유물이 지표상에서 노출되었으므로 시굴조사 요망" 의견에 따라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2016. 1. 14. 창원 가포 공공주택 건설부지 내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
 - 참석자 : ○○○, ○○○

- 결 과

- 도기편, 자기편, 슬래그 등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이 확인되어 생활유구, 생산 유구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봉답들 유물산포지의 경우, 도기편, 슬래그 등이 채집된 바 있고 지형상으로도 가마터 등의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시굴조사가 요망됨
 - 시굴조사 구역 중 일부를 표본시굴 구역으로 변경하는 발굴기관의 의견은 자체 자문회의를 통해 시굴로 수정되어 상신되었고 일부 제도를 숙지함에 있어 미숙한 부분은 인정되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됨
- 2016. 1. 20. 창원 가포 공공주택 건설부지 내 문화재보존대책 협의에 대한 회신
- 기 통보한 협의내용 대로 조치

바. 검토의견

- 동 기관은 기 통보한 창원 가포 공공주택 건설부지 내 문화재보존대책 통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요청에 따라 조사기관 임의로 보존대책(발굴→표본)을 변경하여 통보함에 따라 조사내용의 일관성 및 신뢰성이 결여된 바 있고, 이와 관련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결과 당초 조사방법(시굴)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 동 건의 경우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4’ 개별기준 제2호에 해당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동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제1항
-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II.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2. 지표조사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사. 의결사항

- 보류
 - 처분 심의 위원회 구성 후 논의
 - 차기 위원회(소위)에서 검토 조치
- 보류 7명 / 출석 7명

II. 검토사항

1.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구간 내(10 공구) 유적 보존방안 재검토

가. 제안사항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구간 내(10 공구) 유적」 보존방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5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의(2015. 9. 18.) 및 제12차 회의(2015. 11. 20.) 심의 결과 “유적은 복토하여 보존하되, 유적 활용방안을 제출하여 검토” 하는 것으로 “조건부가결”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전시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2015년 제13차 문화재위원회의(2015. 12. 18.)시 제출된 전시활용 방안의 검토 결과 “ 전시관 면적을 확대(100 m²이상)하고 접근로 개선(안)”을 제출토록 보류된 사항임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 (2) 발굴장소 및 면적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일원 / 발굴(21,914m²)
- (3) 발굴기관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
 - 책임조사원 : ○○○
- (4) 발굴기간 : 2014. 11. 10.~2015. 12. 11.
- (5) 조사결과
 - 조사결과 청동기~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상·하 중층이 부분적으로 형성된 생활유적으로 주거지 200동, 고상식 건물지 4동, 수혈, 구 등 648기의 유구가 확인됨
 -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원형, 말각 방형의 송국리식 주거지이고, 삼국시대 유구는 주거지, 수혈, 구 등으로 중복 및 중첩 조성되었으나 배치 양상으로 보아 유적의 중심 지역은 북쪽으로 이어진 구릉 말단부로 보임
 - 수혈의 평면 형태는 원형, 방형, 부정형 등 다양하며 주거지와 동일하게 중복 및 중첩양상을 보임
 - 구(溝)는 ‘ㄴ’자상으로 이어지는 4호 구가 특징적인데 구 내측에 주거지들이 집중

분포하고 외측에 수혈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락을 구획 및 경계하는
환호 또는 환구로 추정됨

라. 처리경과

- 전문가 검토회의(2015. 8. 25. / ○○○, ○○○, ○○○)
 - 청동기시대~삼국시대 취락유적으로 삼국시대 취락은 중형이상 주거지로 구성된 대규모 취락이며, 팔각건물지가 확인되는 등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임
 - 유적이 가지는 학술적, 역사적 의미가 크므로 유적의 보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8. 25. / ○○○, ○○○, ○○○) : 평점 88.51점
- 매장분과위원회 제10차 회의 심의(2015. 9. 18.)
 - 보류 : 별도의 보존방안을 제출받아 검토
- 매장분과위원회 제12차 회의 심의(2015. 11. 20.)
 - 조건부 가결 : 유적은 복토하여 보존하되, 복토 후 유적 활용방안을 검토
- 매장분과위원회 제13차 회의 심의(2015. 12. 18.)
 - 전시관 면적을 확대(100㎡ 이상)하고, 접근로 개선(안)을 제출 받아 검토

마. 유적전시 활용방안(한국도로공사)

- 추진방향
 - 현재 발굴 조사된 유구 중 학술적 가치가 높고 대표성을 갖는 유구 선정
 -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유구 선정
 - 실시설계 시 발굴기관을 비롯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설계하고 제작 설치
 - 자료조사 → 자문위원 선정 → 유구 선정 → 기본계획 → 실시설계 → 제작 → 설치 → 완공
- 세부 추진경과(자문위원회 / 2015. 12. 1.)
 - 참석자 : ○○○, ○○○, ○○○
 - 회의결과
 - 관람객의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볼 때 도로법면은 유적공원의 위치로 좋은 장소가 아니므로, 도로와 별도로 떨어진 부지에 다수의 유적공원을 마련하도록 함
 - 유적공원에 이전 복원할 유구의 내용과 수량, 전시방법 등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

○ 유적공원 및 전시시설 검토(안)

구 분	기 존(안)	추가 보완 내용
<p>계획안</p>	<p>○ 야외 유적공원 및 내부 전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적공원 : 800㎡ - 내부 전시시설 : 45㎡ 	<p>○ 내부 전시시설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소 내 내부 전시시설(면적 100.86㎡)   <p>○ 찜지공원에서 유적공원으로의 진출입 도로 조성(폭3m, 길이 500m)</p>
<p>위 치</p>	<p>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590 (금정영업소 예정부지 내)</p>	<p>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590 (금정영업소 예정부지 내)</p>
<p>면 적</p>	<p>○ 야외 유적공원 : 800㎡ ○ 내부 전시시설 : 45㎡</p>	<p>○ 야외 유적공원 : 800㎡ ○ 내부 전시시설 : 100.86㎡</p>
<p>시설규모</p>	<p>▶ 유적공원 (실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 상부복원 3개, 주거지 복원물 2개 - 안내사인, 주차장 <p>▶ 유적전시관 (실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오라마, 복제유물 전시 - 벽면 안내 간판 등 	<p>▶ 유적공원 (실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 상부복원 3개, 주거지 복원물 2개 - 안내사인, 주차장 <p>▶ 유적전시관 (실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오라마, 복제유물 전시 - 벽면 안내 간판 등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사업시행자 제출 보존안으로 보존
- 원안가결 7명 / 출석 7명